

##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10 Minutes’ Sharing of Bible Verses and the Practice of Pre-Service Teachers**

서혜정 (Hye Jeong Suh)\*\*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three second-year pre-service teachers about sharing the Bible verses in ‘10 minutes’ in the subject class and the related practic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3 to November 23, 2019, from practice records, narrativ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looked back on their lives by reading the Bible verses, and through the process of ‘plan-action-sharing’, 1) living faithfully, 2) living a planned life, 3) not hating, 4) listening, 5) being patient with anger, 6) not judging, 7) praising, and 8) being honest. This study suggests an example of character education for preparatory teachers whose ‘10 minutes’ of Bible verse sharing is related to Bible verses. It also suggests that character education can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10 minutes’ within the subject.

**Key words : Bible verse, sharing, pre-service teacher,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 2021년 8월 19일 접수, 9월 9일 최종수정, 9월 10일 게재확정

\*\* 백석예술대학교(Baekseok Arts University)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ideasuh@hanmail.net

## I. 서론

‘라떼는 말이야.’는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를 희화한 신조어이다. 이는 현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하는 기성세대의 언어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세대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유아교사의 인성은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서현 외, 2013).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는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유아교사의 인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아교사는 영유아의 인성에 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사회는 좋은 성품과 도덕적 인격을 가진 교사를 원하고 있다(Osguthorpe, 2008). 이러한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예비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의 대학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연규 외, 2020). 이를 입증하듯이 교육부에서는 2013년부터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직 적성 검사 및 인성 검사에 적격판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는 대학에서 예비교사의 인성 함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도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으로(김순환·남옥선 외, 2014) 대학은 예비교사에게 적합한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박근영·권은주, 2019; 서현 외, 2013; 이연규 외, 2020).

인성은 청소년기에 확립되거나 함양된 인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예비교사가 바람직한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박근영·권은주, 2019; 한미라, 2015; Weissbourd, 2003). 대학이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지원한다면 예비교사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실시를 위해 교과 편성 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김춘이, 2017; 노이경, 2016; 이연규 외, 2020), 이미 포화한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신설 교과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규 교과 편성의 어려움에 당면한 대학에서는 비교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였다(김형재 외, 2017; 채영란·김은아, 2018). 그러나 비교과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실시하지 못한다면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은 다시 부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교과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할지라도(김형재 외, 2017; 채영란·김은아, 2018) 연구 이후에도 인성교육을 지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연규 외(2020)는 인성 덕목을 추출하여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 연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는 교과 편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또한 비교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성교육 실천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교과를 운영하는 교·강사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꾸준한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접근 방법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김영준·강경숙, 2018; 최병옥, 2017; Lickona, 1999).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김소연, 2012; 김춘이, 2017; 김충만, 2016; 김홍진, 2006; 이종민, 2020; 정희영 외, 2013; 조용훈, 2016; 한만오, 2016; 한미라, 2015; 한상진, 2017)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독교 대학의 문제 인식과 인성 덕목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가 많으며(정희영 외, 2013; 한미라, 2015), 인성교육은 채플과 성경 교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김소연, 2012; 김춘이, 2017; 한미라, 2015). 이러한 연구 동향은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이 신앙 관련 교과목 내에서 체험 또는 실천교육과 거리가 멀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기독교 대학으로서 인성교육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아직 다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체험, 실천 교육을 통한 방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유리 외, 2016). 이는 인성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함양되거나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는 학습자 참여의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순환·박선헌 외, 2014).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관련한 연구 중 김춘이(2017)는 기독교 교양 과목으로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냈지만, 기독교 대학 내 유아교육 전공과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구절’을 교과목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예비교사가 삶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과학교육 전공 교과목에서 한 학기 여정에서 감내해야 할 예비교사의 상황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매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시간 중 ‘10분’ 동안 ‘성경 구절 읽기-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삶 연결하기-내 삶의 계획 기록하기’를 실시하여 일주일간 일상의 삶에서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일주일간의 실천에 대해 기록한 것을 ‘조원과 나누기-조에서 나눈 이야기 공유하기’의 과정을 설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기’이다. 성경 구절 주제는 유아과학교육 교과목의 주차별 학습 내용과 연관하여, 한 학기 여정에서 겪게 될 ‘자율적인 학습자’, ‘조별 과제 수행’, ‘모의수업 수행’ 및 ‘동료와 교수의 평가’의 내용과 연결하였다. 이는 성경 구절이 예비교사의 삶에 스며드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교육에서 성경 구절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이 일상에서 주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성교육 관련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에서 ‘10분의 성경 구절 나누기’를 통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예비교사의 실천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성경 구절 나눔과 성경 구절에 따른 실천 중심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 내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는 연구자가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서 소명 의식을 실천하고자 2018년에 교과 수업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다. 연구자가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먼저 수업 시간에 출석을 확인하고 이어서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 활동을 한 후, 교과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도하던 첫째 4주 차에 실천 의미를 느낄 수 없어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를 포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연구자에게 자신들은 실천하며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계속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2018년도 경험과 의도를 안내하며 2019년도 1학기 유아과학교육 교과에서 매주 ‘10분간 성경 구절 나누기’를 다시 시작하였다. ‘10분간 성경 구절 나누기’는 교과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두 번째 시도하던 해인 2019년도 1학기 유아과학교육 교과목을 수강한 기독교 B 대학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중 3인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 없이 1주 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강하는 학생 25명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며 연구 참여자로의 참여 의사를 물었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매주 제시된 성경 구절 선정은 강의 계획서의 일정 즉, 플립러닝으로 진행되는 교과이므로 학습자로서 자기 주도적인 사전 학습하기, 협력하며 조별 과제 수행하기, 모의수업 수행 후 동료와 교수의 비평 듣기 등 한 학기 동안 당면할 과업과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정하였다. 즉, 성경 구절의 내용은 유아과학교육 교과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매주 제공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구절의 의미를 나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실천할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거부감이나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고우련, 이은실, 2019) 성경 구절 선정 시 또 다른 고려는 종교색이 얹은 구절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하며 한 학기 동안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구절은 잠언에서 9구절, 누가복음에서 1구절, 마태복음 1구절, 전도서 1구절 총 12개의 성경 구절을 선정하였다. 성경 구절을 잠언에서 많이 선택한 이유는 삶에 대한 가르침의 지혜를 수록한 구절이 많아 예비교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전도서의 구절 또한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주차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확정하고 난 후, 성경 구절이 예비교사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한글 번역본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한글번역본은 개역개정(대한기독교서회, 2015), 현대인의 성경(생명의말씀사, 1990),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77)에서 선정하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information<sup>1</sup>

name	age	trait	religion
Kim, M. A.	22	Under the influence of her aunt, who was a kindergarten teacher, she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wants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because she wants to make a good impact on children. She was intrigued by the professor's offer for an interview and agreed to the study.	no religion
Lee, A. J.	26	After graduating from a four-year university, she worked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has no knowledge of the Bible. She wanted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under the influence of her mother, who was the head of a kindergarten. She wants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because she receives positive energy when she is with children and wants to become a person who want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her children.	no religion
Lee, H. S.	22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she entered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e has no knowledge of the Bible. While working part-time with infants, she wanted to be an early childhood teacher as she became interested in children. She agreed to the study because she thought her experience with the Bible would be positive.	no religion

예비교사에게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기’이다. 성경 구절 주제는 유아과학교육 교과와 주차별 학습과 연관하여, 한 학기 여정에서 겪게 될 ‘자율적인 학습자’, ‘조별 과제 수행’, ‘모의수업 수행’ 및 ‘동료와 교수의 평가’의 내용과 연결하였다. 플립러닝으로 진행되는 교과에서 예비교사는 ‘자율적인 학습자’에서부터 조별 과제(계획안 작성, 수업 분석)와 모의수업을 함께 수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조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한 공간 안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나누고 비평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의 3가지 차원으로 서로 교차하며 관계를 이룬다. 삼차원의 관계에서 공동 학습체로 나아가야 하는 예비교사의 인성 요소는 내적 인성(자기 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 사회적 인성(존중, 의사소통, 협력), 공동체적 인성(책임감, 정의감, 윤리의식) 요소가 서로 교차하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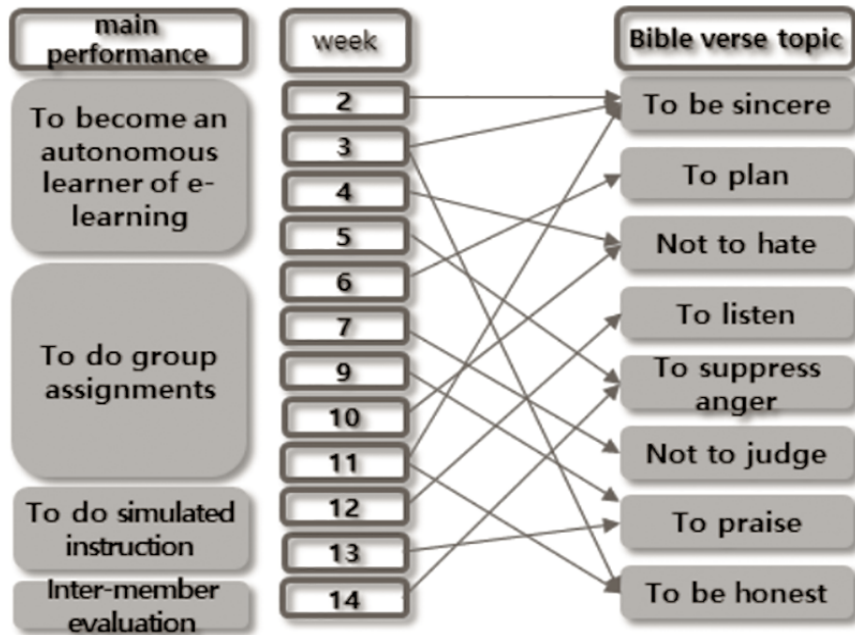


Figure 1. Bible verse topics selected according to the course progress

며,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이 필요하였다(서경혜, 2013). 한 학기의 여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성경 구절 주제와 인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성실하기’와 ‘계획성 있는 삶 살기’는 ‘지속적인 배움’, ‘미워하지 않기’는 ‘존중’, ‘경청하기’는 ‘협력’과 ‘의사소통’, ‘화 참기’는 ‘자기 조절’, ‘판단하지 않기’는 ‘정의감’, ‘칭찬하기’는 ‘정의감’과 ‘의사소통’, ‘정직하기’는 ‘윤리의식’의 인성 요소와 연결된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9년 3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그리고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천 기록지는 매주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를 하며 기록한 문서이다. 실천 기록지는 10분간 진행되는 ‘성경 구절 읽기-성경 구절과 나의 삶과 연결하기-계획하기-실천하기-공유하기’의 과정이 담기도록 구성되었다. 실천 기록지는 교과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록에 대한 것도 학습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자는 실천 기록지에 자율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기에 실천 기록지에 대한 기록 여부나 충실한 기록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단지, 실천하지 못하면 학습자는 ‘조원과 나누기’ 시간에 나눌 이야기가 없이 동료의 실천 경험만 듣게 된다. 서술식 질문지와 면담 자료는 ‘10분 성경 구절 나누기’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면담 자료를 의미 있는 것을 세그멘팅하여 주제어를 짓고,

Table 2 Bible verses provided in the lecture

week		Bible verse
1	orientation	
2	Become an autonomous learner	“Sleep a little. Doze a little. Fold your hands and twiddle your thumbs. Suddenly poverty hits you and everything is gone!(Proverbs 24:33-34a)”
3		“Anyone who can be trusted in little matters can also be trusted in important matters. But anyone who is dishonest in little matters will be dishonest in important matters.(Luke 16:10)”
4		“Hatred stirs up trouble; love overlooks the wrongs that others do.(Proverbs 10:12)”
5		“Don’t be a fool and quickly lose your temper-- be sensible and patient.(Proverbs 29:11)”
6	group assignment -curriculum reconstruction	“If you plan and work hard, you will have plenty; if you get in a hurry, you will end up poor.(Proverbs 21:5)”
7		“Don’t condemn others, and God won’t condemn you. God will be as hard on you as you are on others! He will treat you exactly as you treat them.(Matthew 7:1-2)”
8	Midterm exam	
9	group assignment Writing a plan, preparing for simulated instruction	“Sensible thoughts lead you to do right; foolish thoughts lead you to do wrong.(Ecclesiastes 10:2)”
10		“Kindness is rewarded-- but if you are cruel, you hurt yourself.(Proverbs 11:17)”
11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Proverbs 15:19)”
12	simulated instruction	“Fools think they know what is best, but a sensible person listens to advice.(Proverbs 12:15)”
13		“Kind words are like honey-- they cheer you up and make you feel strong.(Proverbs 16:24)”
14	Inter-member evaluation	“Controlling your temper is better than being a hero who captures a city.(Proverbs 16:32)”
15	Finals exam	

주제어 간에 유목화를 하며 분석하였으나 자료 분석 결과는 결국 성경 구절의 주제와 같게 최종 유목화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 3인은 의도대로 반영되었다고 피드백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자 1인으로부터 주제어와 인용문의 연결 및 해석 타당도, 주제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과 동료 검증(peer checking)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Creswell, 2017).

Student ID		name	
------------	--	------	--

1. Reading Bible Verses Aloud
 

"Kind words are like honey--- they cheer you up and make you feel strong.(Proverbs 16:24)"
2. Linking Bible Verses to My Life
3. Recording my life plan/Recording your action plan
4. Recording your work for a week
5. Sharing with the practice in group
6. Sharing with the whole class

Lessons that begin with Bible verses and prayers    Date 2019. . . .

Figure 2. practice record form

Table 3 Questions on the narrative questionnaire

Questions example
1. What was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 practice after starting with the Bible and practicing it for a week?
2. What was the Bible verse that resonated with you the most? Why?
3. Describe your life changed by practicing it for a week through the Bible.
4. The professor tried to select the word according to the learning situation of the 15th week. Were the professor's intentions reflected in your life? If it was helpful, what was it?



Table 4 Interview material

Questions example
1. What is the most memorable thing you did? 2. Tell us about practical examples. 3. Was there any repulsion to religion? 4. Which Bible verses are presented in a timely manner?

Table 5 data collection

material type	purpose	data collection amount
practice recording paper	Encouraging action with a tangible view of the experience-plan-do of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Getting to know experience-plan-do	36page
Descriptive Questionnaire	Getting to know your thoughts on the experience-plan-do of the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3page
interview material	Getting to know the experience of ‘sharing Bible verse for 10 minutes’	group interview 2 times (65 minutes) individual interview 2 times (84 minutes) total 43page



Figure 3. Example procedure for sharing Bible verses in class

Table 6 validation

feedback	
member checking	<p>Three participants sai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ir intention and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p> <p>Only Kim requested to correct the typo.</p> <p>【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예비고사로서 주어진 일에 적으면 적응수록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큰일도 우습게 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적당히 수행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애비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어야 한다.</p> <p>【계획하기】 작은 것들이 모여 큰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다. 지금껏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였다가 그 일들이 눈앞이처럼 커져서 낭패</p> <p>교수님 읽어봤는데요 제 해석과 같아요 ㅎㅎ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사고환을 사소한 으로 바꿔주세음</p> <p>오후 6:57</p>
peer checking	<p>Agree and give feedback on the thesis title and keyword.</p> <p>Feedback on text corrections.</p> <p>덕적 인격을 가진 교사를 원하고 있으며(Osguthorpe, 2008).</p> <p>있다_로 문장을 끊었으면 좋겠어요.</p>

### III. 연구결과

#### 1. 성실하게 살기

2주의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잠언 24: 33-34a)”와 11주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이다.(잠언 15: 19)”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에게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한 계획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해수는 시간이 압박해서야 과제를 했던 게으른 생활을 반성하면서 잠을 줄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자 계획하여 실천하였으며, 그러한 생활 태도가 2학기에도 지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잠을 줄임으로써 생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여 아르바이트하였고 늦잠으로 인해 강의를 오후에 수강하던 것을 2학기에는 아침 시간표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할 일을 미루다 밀린 과제를 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과제를 잘 완수하고자 계획하여 계획한 대로 과제를 하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과제를 마감일 전에 몰아서 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성경말씀을 읽으니 나의 게으른 생활이 반성된다.

【계획하기】 과제를 미리 시간을 두고 해야겠다(과제를 많이 검토하기) 과제를 미루려고 할 때 성경말씀을

생각하기로 했다. 또한, 쓸데없이 자는 잠을 줄이기로 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으며 성실하게 살기로 계획을 해보았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3. 20)

과제를 마감일 하루 전에 할 때도 있고 한 2~3일 전에 몰아서 했어요. 저는 마감일이 다가와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또 그걸 하느라 다른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중략… 제가 원래 알바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수, 목요일이 공강이라서 화요일 수업 끝나고 바로 가서 알바하고 수요일에도 알바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자는 잠이 많으니까 어차피 자느니 알바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략… 제가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1학년 때는 시간표를 되게 늦게 짰어요. 그런데 1학기 때 이거 하고 나서 변해서 2학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침으로 시간표 다 짰어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게으름을 피우다가 과제들을 미루게 되었는데 급한 마음으로 밀린 과제들을 하려니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다.

**[계획하기]**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늘어지고 싶고 게을러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게으름을 더욱 경계해야겠다. 계획한 것을 미루지 말고 중간 중간 리프레쉬를 하며 많이 남은 과제들을 잘 해쳐 나가도록 해야겠다.

**[실천하기]**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 했더니 마음이 정말 편했고, 스트레스와 막연한 걱정도 줄었다. 앞으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주어진 과제들을 해야겠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5. 22)

3주에 제시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누가복음 16:10)”는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작은 것’에 대한 가치 인식에 변화를 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예비교사로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완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유아들에게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여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하고 점차 큰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김민아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다 보니 의미 있는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성경 구절로 인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소임을 다하자 성과도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작은 일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주제를 연구 참여자의 삶에서 녹여내며 작은 것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예비교사로서 주어진 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큰일도 우습게 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적당히 수행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계획하기]** 작은 것들이 모여 큰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다. 지금껏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였다가 그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낭패를 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작은 일부터 찾아서 끝내고 큰일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이 많아지고 일주일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김민아, 면담, 2019. 6. 12)

‘작은 일에도 성실하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전에는 작은 일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읽고 실천해보니까 스스로 얻는 것도 있고 또 다 알아주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얻는 것도 있고. (이혜수, 면담, 2019. 5. 2)

## 2. 계획성 있는 삶 살기

연구 참여자들은 2학년이 되자 1학년 때보다 많은 과제로 벅찬 2학년을 맞이하였다. 6주에 제시된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해지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해진다.(잠언 21: 5)”는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욱 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에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던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갖고자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니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게 되어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성실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결과에 다다르고 성장할 것이라 믿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하여 하나씩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예지는 많은 과제로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일주일간의 단기 실천 계획은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실천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꼭 하고 어떤 일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너무 기뻐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하나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삶을 살다보니 까먹는 일도 잘 없고 미리미리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조급하게 닥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다.

**[계획하기]** 앞으로도 평소처럼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어쩌다 한 번 일이 밀려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일을 끝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완성도도 매우 떨어진 적이 있었다. …중략… 절대 기면서 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다.

**[실천하기]** …상략… 긴 시간을 쪼개어 계획했더니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서둘러서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과제를 해서 매우 뿌듯한 기분이었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10)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니 시간낭비하지 않고 아껴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김민아,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할 일이 많아 막막하더라도 잘 계획하고 매일 성실하게 임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할 것이다.

**[계획하기]** 하나하나 계획하여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기

**[실천하기]** 이번 주에 제출하는 과제가 5개나 있어서 막막하고 조급했지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해나갔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4. 10)

아무래도 일주일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니까 일주일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6. 11)

### 3. 미워하지 않기

4주에 제시된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 준다.(잠언 10: 12)”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편견으로 유아를 보았던 경험을 반추하며 선입견이 강한 자신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겠다고 계획하였다.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 김민아는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도 세상일도 다르게 보임을 경험하였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속에는 성경 구절이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성경 구절을 삶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이전의 삶과 달라진 점은 미워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삶의 특성을 받아들이게 되어 상대를 용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며 조화롭게 과제를 진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더불어 상황이 미움을 유발하더라도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의 교사가 품어야 할 유아들을 상상하며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처음 교육봉사에 갔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맡은 반에 있는 유아와 친구반의 유아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아이는 괜찮은데 다른 아이는 좀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내 친구는 나와 반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온전히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로 유아에게 함부로 밟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계획하기]** 돌아보면 선입견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고 살아왔던 거 같다. …중략…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타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사랑으로 덮어줘야겠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미움은 말썽을 일으킨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서 최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했더니 평소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일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던 일이 많았던 것 같다. 마음먹기에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생각보다 사랑으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3. 27)

모든 게 보는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보면 계속 한없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좋게 상황으로 봐 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깐 그렇게 막 나쁜 마음이 안 들고 좋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심했거든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제 마음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다르게 한 번 생각해본 경험, 그 한 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민아, 면담, 2019. 5. 2)

조원과 갈등이 생길 뻔 했는데 그 친구를 미워하기보다 '여러 과제로 힘든 상황이라 예민했구나.'하고 이해했더니 마음이 편했다. 그 친구와 여전히 잘 지내면서 조별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이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쿨하지 못해서 뒤끝이 길거든요. ...중략... 미워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게 된 거 같아요. (이예지, 면담, 2019, 6. 12)

이 말씀을 앞으로도 꼭 새기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유아교사가 된다면 ...중략... 특히나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유아에게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미운 감정이 생기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6. 11)

10주에 제시된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잔인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잠언 11:17)”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타인에게 했던 부정적인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던 경험으로 자신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겠다고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그러나 일주일간 상대방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방심하는 순간 자신의 말로 인해 상처받는 상대방을 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더 주의해야 함을 반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성경 구절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였던 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는 자신을 반성하며, 친절을 먼저 베풀며 능동적으로 관계 맺기를 계획하여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계획하기]**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을 대할 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해야겠다. …중략…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서 남에게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상대방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서 최대한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방심하자 금방 실수가 튀어나왔다. 무심코 한 말에 여러 명이 상처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아이들의 놀란 얼굴과 짜증 섞인 행동이 당시에도 스스로 내 행동이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매우 놀랐고 기록하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 말과 행동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일을 반성해서 주의하도록 하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5. 21)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잔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잔인하게 대한다.

**[계획하기]**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가갈 것이다.

**[실천하기]** 아는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였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21)

#### 4. 경청하기

12주에 제시된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는다.(잠언 12:15)”의 성경 구절은 연구 참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또는 학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충고는 잘되라고 하는 것임에도 좋게 받아들인 적이 없음을 깨달아 충고를 듣는 그 순간은 언짢겠으나 자신을 위한 말이므로 보다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 충고를 받아들이겠다고 계획하여 모의수업에 대한 동료 학습자의 충고를 수용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자신의 성품을 ‘주장이 세고 고집이 있음’을 인정하며, 흑백논리로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대치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친구의 충고를 경청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자기주장이 센 편이라 어머니의 충고도 마다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보다 어머니의 의견이 더 지혜로움을 인식하여 어머니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대학에 와서 느낀 것이지만 내가 남이 하는 충고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활을 다시 돌아봤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잘 되라고 충고해주신 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고치려 하지 않고 짜증난다고만 생각했다. …중략… 어리석게 내가 맞다고 고집피우고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들을 내 좁은 식견으로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여겼다.

**[계획하기]** 남의 충고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고 충고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겠다. …하략…

**[실천하기]** 요즘 모의수업 실연을 하며 평가와 충고를 받는 일이 많아서 일주일간 그런 평가와 충고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배제하고 충고를 통해 서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상하지 않고 더 배울 수 있었던 거 같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6. 11)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자기주장이 세고, 한 번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은 밀고 나가는 고집도 있는 편이다.

**[계획하기]** 내 생각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충고를 마음을 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실천하기]** 내가 틀린,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니어도 옳은 행동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꼭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고, 다른 이의 말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6. 11)

엄마 말씀을 제가 안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이 센 편이 아닌데 가족한테만큼은 제 주장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행동을 했는데 제 행동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배우는 건 없어서 중요한 건 엄마 말씀 들으려고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 5. 화 참기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잠29: 11)”는 5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에 따라 ‘화’의 감정을 맞닥뜨릴 때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성경 구절을 접하기 전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하여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자제하지 못하여 화를 낸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며, 이전보다 화를 다스리다 보니 감정 소모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화가 난 상황에서도 마음속 나쁜 말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계획하여 ‘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 노력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나쁜 말을 생각하지 않고 또 언어표현으로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계획하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락…

**[실천하기]** 원래 겉으로는 화를 내려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계속 화나는 적이 많아 일주일간은 화가 나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화가 섞인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너무 화가 난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실천하였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빨리 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 의미 없는 감정 소모도 없고 관계도 틀어지지 않게 되어서 좋았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3)

감정 소모가 줄게 되어 의미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김민아,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정말 화났을 때 욕을 뱉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내가 생각났다.

**[계획하기]** 정말 화가 났더라도 욕은 나쁜 뜻을 가진 나쁜 말이므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천하기]** 화났을 때는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왜 화가 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난 후, 화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15)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화가 나면 욕은 좀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욕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혜수, 심층면담, 2019. 10. 23)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잠언 16: 32)”는 14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가지고 있는 성품이 ‘화’ 감정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겠다고 계획하여, 동료로 인해 화나는 상황에서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평소에 가족에게 화를 잘 내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부모에게 자주 화를 내는 것을 줄이겠다고 계획하였다. 이혜수는 화를 내지 않으려 실천하면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되면 자신의 행동 의도와 다른 자신의 화냄에 대해 사과하고, 지속적인 화를 다스리는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도 화가 나면 감정이 격해지고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용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계획하기]** …상략… 어떤 상황에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내 사진을 다스려봐야겠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 화를 낼 것이다.

**[실천하기]**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기분 나쁘게 톡톡대며 말했는데 성경말씀이 떠올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친구도 기분이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스리고 넘어갔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6. 19)

**[계획하기]** 나는 화를 정말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님한테 정말 화를 잘 낸다. 성경 말씀을 통해 화를 다스리긴 하지만 가끔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더 노력해야겠다.

**[실천하기]** 하루에 화 한 번 이상 내지 않기를 일주일 간 실천하였다. 나의 화를 다스리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6. 19)

가족한테 짜증내는 게 계속 미안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하면, ‘내가 어쩌다보니 이렇게 나오게 됐다.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혜수, 면담, 2019. 10. 23)

## 6. 판단하지 않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다.(마태복음 7: 1-2)”는 7주에 제시된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타인을 평가하던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다.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예지는 존중과 수용하는 정도가 커져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성장하였다. 이혜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판단하고 화가 난 경험을 회상하여 남을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로 계획하여 장점을 보려 노력하면서 갈등 상황이 생겨도 다투지 않으려 노력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김민아는 평소에도 남을 선불리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였다. 김민아는 선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경험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미래의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대비하여 선부른 판단으로 생기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교사로서 상황에 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나는 저울질 당하기 싫으면서 타인을 나도 모르게 저울질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타인을 평가하려들지 말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실천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좀 더 자랐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4. 17)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조별 과제를 했을 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을 판단하고 단정 지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계획하기]** ...상략... 내가 남들에게 평가받고 판단받기 싫은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실천하기]** 주변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생각하지 않기를 실천하였다. 좋은 점을 많이 보려 하였고 좋은 점에 대해 칭찬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4. 17)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내가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국민 청원이나 뉴스에 사건이 났을 때 자주 일어났던 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옛날부터 이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중략... 그 중에 몇 개는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우했던 가정사가 밝혀지는 일들이 많아서 매번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곤 했다.

**[계획하기]** 나는 유치원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를 멋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대신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중립의 입장에 서고 싶다. 한 번 내린 판단을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이다.

**[실천하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한쪽으로 생각이 기울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며 선불리 판단하지 않으려 했고 다른 면을 많이 보려 애썼다. 하지만 한 번 판단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뒤 어떤 말을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이러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4. 17)

## 7. 칭찬하기

9주에 제시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전도서 10: 2)”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예비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어사용에 대해 반성하였다. 나쁜 언어와 행동을 기분에 따라 하지 않도록 노력하

겠다는 계획을 하여 기분 나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언어 표현을 하다 보니 감정조절을 할 수 있어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직설적으로 말하던 언어 습관을 고운 언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2학기 후반부에도 지속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예비교사로서 더더욱 나쁜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과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때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나쁜 언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고,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쁜 짓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실천하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두세 번 더 생각한 후에 순화하여 표현했다. 감정을 조절하고 좋게 표현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예지, 실천 기록지, 2019. 5. 15)

확실히 많이 좀 순화된 표현, 예쁜 말. 그런 걸 많이 사용하려고 평소에도 진짜 노력하는 거 같아요. 저는 주장이 은근히 센 편이어서 둥글게 말하거나 예쁜 말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좀 직설적으로 세계 말하거든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서 다다다다 말하는 스타일이예요. 지금은 순화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이예지, 면담, 2019. 11. 4)

13주에 제시된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건강하게 해 준다.(잠언 16: 24)”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성경 구절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여 회상해보니 친절한 말을 많이 들어봤으나 친절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듣는 것은 좋으므로 김민아는 친절한 말을 능숙하게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래서 대화의 마무리를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동료와 서로 웃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계속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되돌려주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먼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친절한 말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2학기에도 지속해서 실천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내가 생활하며 주변의 좋은 분들에게 친절한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내가 친절하게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면 왠지 오글거리며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중략...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싫지는 않았다.

**[계획하기]** 나도 앞으로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해준 사람들처럼 남에게 친절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후략…

**[실천하기]** 일주일간 내가 이야기 나눴던 마지막 대화는 그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을 하며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카톡으로도 마지막 톡은 잘 할 수 있으니 걱정을 말라든지 힘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한 말로 끝내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좋았다. 매번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보고 싶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6. 12)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한 말이나 칭찬을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이나 칭찬을 해준다.

**[계획하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서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하기]**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실천하였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6. 12)

친구한테 요즘엔 먼저 해줘요. ‘너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말도 해주고… (이혜수, 면담, 2019. 10. 23)

## 8. 정직하기

11주에 제시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이다.(잠언 15: 19)”는 성경 구절로 연구 참여자 이혜수는 작은 노력에 큰 결실을 기대한 자신을 반성하여 가훈과 같이 정직한 삶을 계획하여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지내고자 실천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1학기의 실천이 2학기에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이예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e-러닝을 미루지 않고 정직하게 들으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e-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학습하는지의 여부는 학습자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직하게 임하려는 노력은 ‘들어만 놓고 잘 듣지 않는 e-러닝’이 아닌 집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예지에게 성경 구절은 e-러닝학습에서 정직한 학습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가끔 조금 노력하고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생각났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었다.

**[계획하기]**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하게 살자’ 인만큼 정직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실천하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냈고 양심적으로 지냈다. (이혜수, 실천 기록지, 2019. 5. 22)

11주차의 거짓말 안 하는 거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혜수, 심층면담, 2019. 10. 23)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주 들어야 되는 e러닝을 미루지 않고 필기하며 열심히 듣고 있다. (이예지, 서술식 질문지, 2019. 5. 2)

연구 참여자 김민아는 9주에 제시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전도서 10: 2)” 성경 구절로 상대방이 듣기에 좋으라고 한 이야기도 거짓말이라 생각하여 그러한 거짓된 마음을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솔직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대화하려다 보니 대화 기술이 부족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볼 것을 다짐하였다.

**[계획하기]** 지금까지 엄청 크게 속인 적은 없었지만 기분 좋으라고 한 말로 남을 속인 적은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상대방에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반성되고 앞으로는 고치도록 해야겠다.

**[실천하기]** 일주일간 상대방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일주일간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다. 그냥 말하지 않고 마는 걸로 속으로 생각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상대도 서로 너무 불편했다. 더 노력을 기울이거나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김민아, 실천 기록지, 2019. 5. 15)

## IV. 논의

본 연구는 교과 수업에서 예비교사들이 주마다 안내한 성경 구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반영하고, 1주일간 실천할 것을 계획하여 실천에 대한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갖는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에 대해 2학년 예비교사 3인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과학교육’ 교과 시간에 ‘10분의 성경 구절 나누기’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성경 구절과 연

결하여 실천한 주제는 성실하게 살기, 계획성 있는 삶 살기, 미워하지 않기, 경청하기, 화 참기, 판단하지 않기, 칭찬하기, 정직하게 살기이다. 예비교사들의 실천은 교수자가 선정한 성경 구절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실천할 요소를 찾아내어 실천한 후, 다음 주 수업에서 1차 조별 동료와 2차 전체 학급 동료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교사마다 삶의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실천 내용은 때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였지만, 성경 구절이 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실, 계획, 사랑, 경청, 감정 조절, 수용, 칭찬, 정직’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였다. 학기 중에는 교과 시간에 ‘성경 구절 나눔-반성-계획-실천 공유’의 흐름에 따라 실천하였지만,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운영하거나(김춘이, 2017; 노이경, 2016; 박소연·박현숙, 2015; 이연규 외, 2020), 비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김형재 외, 2017)을 운영한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위해 한 학기 운영하는 교과 시간의 단 ‘10분’을 활용했지만, 예비교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연결하여 변화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교과에서 할애한 인성교육 시간보다 인성교육의 효과는 높았음을 드러내었다. 특히, 박소연과 박현숙(2015)은 전공 선택 교과목에서 강의와 활동, 그리고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하여 구성한 인성교육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지만, 짧은 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박소연과 박현숙(2015)은 그 이유를 이미 성장한 대학생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유추하면서 대학생은 인성교육에 많이 노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실천을 동반한 인성교육인가, 아닌가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에 인성 관련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연규 외(2020)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같으면서도 다른 결을 보인다. 즉, 인성교육을 교과목과 연계한 것은 같은 맥락이나, 이연규 외(2020)는 인성 덕목과 교과목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몰아치는 과제, 조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분쟁, 모의수업에 대한 비평’ 등 한 학기 동안 예비교사의 학업 과정 중 당면할 상황에 맞는 인성덕목을 연결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화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교과 신설에 대한 어려움과 비교과 인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인성교육 운영 시 교수자와 예비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요소를 스스로 선정하여 실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가지며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실천하며 변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영과 권은주(201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즉,

인성은 지식으로 접근하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인성 덕목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박근영·권은주, 2019).

둘째, 매주 안내하는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실천 기록지에 있는 ‘삶과 성경 구절 연결하기’, ‘일주일간의 실천할 내용 계획하기’, ‘일주일간 실천하기’에 대한 기록은 예비교사 각자의 ‘반성’, ‘계획’, ‘실천’의 영역이라면, ‘조원과 나누기’, ‘조에서 나눈 이야기 공유하기’는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 다지기’의 반성 기회로 작용하는 전략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교수자는 단지 교과 수업 시간에 ‘10’분을 성경 구절 나눔의 시간으로 배정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에게는 그 ‘10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10분’의 경험으로 그쳤는지는 공유의 시간을 통해 동료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이다. 실천한 사례를 동료와 나눔으로써 예비교사는 교과 시간의 ‘10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즉, 교과 시간 안에서 진행하는 ‘10분’의 주도권은 교수와 예비교사 모두에게 있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주도권은 예비교사에게 있었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한 학기 동안 인성교육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인 3인의 예비교사들은 ‘10분’을 ‘일주일’과 연결하여 주도권을 갖고 실천하였다.

김홍진(2006)은 회개가 있어야 인성이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주일간의 실천을 계획하도록 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여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며, 자기 생각과 행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개선할 방향을 찾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본 연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김순환과 박선헌 외(2014)는 인성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 ‘태도’나 ‘역량’처럼 스며들 수 있는 가치관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Lickona(1997)는 인성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좋은 습관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리 외(2016)는 실제 삶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되어 체화될 수 있어야 비로소 본인의 성품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예비교사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하여 변화하는 자신을 동료에게 드러내며, 변화한 자신을 매일 만나는 인성교육의 주체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다. 김홍진(2006)과 김유리 외(2016), 그리고 Lickona(1997)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예비교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반성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주도권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반대학에서든 기독교 대학에서든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단발적인 특장이나 행사로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으로 한 학기 이상 제공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노이경, 2016), 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 관련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현 외, 2013). 이러한 연구의 고민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시간 확보, 지속성, 그리고 효과일 것이다. 한편 이연규 외(2020)는 인성교육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한 동안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속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연규 외(2020)가 주장하는 2~4년의 교육 연한 동안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인성 증진, 그리고 노이경(2016)의 주장처럼 한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로 충실하고 광범위하게 인성교육이 구현되었을 때 보이는 효과성 때문일 것이다(Berkowitz & Bier, 2007). 그러나 학교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Bennonga et al., 2006) 본 연구와 같이 교과목 안에서 교과 내용의 수업 시간 중 작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속해서 진행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이 예비교사가 지식 차원이 아닌 삶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변화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예비교사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성교육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교과 시간 중 매주 ‘1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연구 참여자들인 예비교사의 삶에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인성교육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신입생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교사의 좋은 인성은 교직 적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교직원 함양을 위한 성경 구절 나눔에 관해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과부하 된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과목 편성으로 인성교육을 추가하지 않고 교과 영역 안에 인성교육을 통합할 방안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우련, 이은실 (2019).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신앙과학문**, 24(2), 67-96.
- [Go, W. Y. & Rhee, E. S. (2019). Analysis of Class Adjustment in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among First-year Students of a Christian University. *Faith and Scholarship*, 24(2), 67-96.]
- 김소연 (2012).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4, 181-209.
- [Kim, S. Y. (2012). A study on chapel Activity for characte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81-209.]
- 김순환, 남옥선, 박선헌 (2014). 인성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3,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363-391.
- [Kim, S. H., Nam, O. S., & Park, S. H.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among stud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ree and four year colleges across the n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63-391.]
- 김순환, 박선헌, 남옥선 (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8(2), 339-363.
- [Kim, S. H., Park, S. H., & Nam, O. S. (201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of character for the teaching profession target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2), 339-363]
- 김영준, 강경숙 (2018). 대학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반 구축방안. **교사교육연구**, 57(3), 411-428.
- [Kim, Y. J. & Kang, K. S. (2018). A study on a plan to create a basis for a curricular upgrade with a view to Activating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3), 411-428.]
- 김유리, 김현철, 박진옥, 권선헌, 김누리 (2016).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1-20.
- [Kim, Y. R., Kim, H. C., Park, J. O., Kwon, S. H., & Kim, N. R. (2016). A new paradigm of character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4(4), 1-20.]
- 김춘이 (2017).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 과목이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끼친 영향 분석. **대학과 선교**, 33, 65-90.
- [Kim, C. Y. (2017).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on characte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3, 65-90.]

- 김충만 (2016). 기독교와 인성-경성대학교 건학이념(‘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0, 83-104.
- [Kim, C. M. (2016). Christianity and character: on KSU (: KyungSung University) founding principle rooted In christian gospel for the full blossom of character build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40, 83-104.]
- 김형재, 현혜정, 이순애 (2017). 명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3), 25-54.
- [Kim, H. J., Hyun, H. J., & Lee, S. A. (2017). The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based on storytelling using famous picture on the persona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pre-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4(3), 25-54.]
- 김홍진 (2006).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기념논문집**, 30(1), 407-426.
- [Kim, H. J. (2006). A christian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ies. *festschrift*, 30(1), 407-426.]
- 노이경 (2016). 대학의 교양과목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인간이해**, 37(2), 115-138.
- [Noh, Y. K. (2016). The effect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a college liberal arts cours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7(2), 115-138.]
- 대한기독교서회 (2015). **개역개정**. 경기: (유)성서원.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n (2015). *New Korean Revised Version*. Gyeonggi: (Yu) Seongseowon.]
- 대한성서공회 (1977).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 [Korean Bible Society (1977). *Revised Common Translat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 박근영, 권은주 (2019). 예비 유아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1(2), 681-720.
- [Park, K. Y. & Kwon, E. J.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a contents for preschool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ducation. *culture and convergence*, 41(2), 681-720.]
- 박소연, 박현숙 (2015). 예비 중등 역사교사를 위한 창의·인성 교수법 운영 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183-207.
- [Park, S. Y. & Park, H. S. (2015).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a contents for preschool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8(3), 183-207.]
- 생명의말씀사 (1990). 한영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 [Word of Life (1990). *New International Version*. Seoul: Word of Life.]

-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김수진, 이지영, 현성혜 (2013). 예비교사 교직인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 [Seo, K., Choi, J., Noh, S., Kim, S., Lee, J., & Hyun, S.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 Disposition Assessment Instrum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1), 147-176.
- 서현, 임지윤, 박미자 (2013).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의 인식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77, 41-71.
- [Seo, H., Lim, J. Y., & Park, M. J.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liminary childhood teachers and current childhood teachers on the desirable persona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7, 41-71.]
- 이연규, 조인경, 유철선 (2020).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 덕목과 교과목 연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5(1), 5-26.
- [Lee, Y. G., Cho, I. K., & Ryu, C. S. (2020). The connection between the virtues and the subjects for character education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Children*, 5(1), 5-26.]
- 이종민 (2020). 기독교 인성교육의 준거로써의 양심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93, 91-123.
- [Lee, J. M. (2020). A study on conscience as a criteria for character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93, 91-123.]
- 정희영, 이정규, 한민좌 (2013).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기독교교육논총**, 36, 195-217.
- [Jeoung, H. Y., Lee, J. K., & Han, M. J. (2013). extraction of the Virtues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195-217.]
- 조용훈 (2016).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31, 227-258.
- [Jo, Y. H. (2016).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in the christian universitie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227-258.]
- 채영란, 김은아 (2018).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 **인문사회** 21, 9(4), 473-388.
- [Chae, Y. R. & Kim, E. A. (2018).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pre-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473-388.]
- 최병옥 (2017).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탐색.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5(3), 85-108.
- [Choe, B. O. (2017). A study on exploration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5(3), 85-108.]
- 한만오 (2016).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8, 179-208.
- [Han, M. O. (2016).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character of the chapel of christian universities.

*The Gospel and Praxis*, 38, 179-208. ]

한미라 (2015). 인성교육,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교육정보*, 12, 321-359.

[Hahn, M. R. (2015). Character education in christianity.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2, 321-359.]

한상진 (2017). 인성에 대한 교육적 의미. *신학과 실천*, 54, 417-444.

[Han, S. J. (2017). Educational significance of personality. *Theology and Praxis*, 54, 417-444.]

Bennonga, J. S. Berkowitz, M. W., Kuehn, P., & Smith, K. (2006). Character and academics: what good school do. *Phi Delta Kappan*, 87(6), 448-452.

Berkowitz, M. W. & Bier, M. C. (2007).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5(1), 29-48.

한유리 역. (2017).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 Creswell J. W.(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서울 : 박영story.

[Han, Y. R. (2017).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Seoul : Parkyoungstory. Trans. Creswell J. W.(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North America: SAGE]

**American Bible Society (1995).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 Bible. TN: Thomas Nelso.**  
**<http://www.holybible.or.kr>**

Osguthorpe, R. D. (2008). On the reasons we want teachers of good disposition and moral character.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9(4), 288-299.

Lickona, T. (1997). The teacher's role in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179(2), 63-80.

Lickona, T. (1999).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Association of Teacher Educators)*, 20(4), 77-84.

Weissbourd, R. (2003). "Moral teacher, moral student." *Educational Leadership*, 60(6), 6-11.

#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에 대한 예비교사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10 Minutes’ Sharing of Bible Verses and the Practice of Pre-Service Teachers

서혜정 (백석예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교과 수업에서 ‘10분’의 성경 구절 나눔과 그와 연관한 실천에 대해 2학년 예비교사 3인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자료는 2019년 3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천 기록지, 서술식 질문지, 그리고 면담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 구절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획-실천-공유’의 과정을 통해 1) 성실하게 살기, 2) 계획적인 삶, 3) 미워하지 않기, 4) 경청하기, 5) 화 참기, 6) 판단하지 않기, 7) 칭찬하기, 8) 정직하기를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성경 구절 나눔의 ‘10분’이 성경 구절과 관련하여 실천 중심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교과 내 ‘10분’의 짧은 시간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성경 구절, 나눔, 예비교사, 실천, 인성교육